

미한국상공회의소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시작

6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10여개 지상사 근무 예정

미 한국 상 공 회 의 소 (KOCHAM, 회장 박호찬)는 5월 31일 맨해튼 소재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여름 인턴십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현재 선발된 21명의 학생들은 학년, 전공 및 특기사항을 고려해 뉴욕 및 뉴저지 등에 위치한 KOCHAM 회원사에 배치돼 오는 8월 9일까지 10주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금년 20회째를 맞이하는 미한국상공회의소 여름 인턴십 프로그

램은 여름방학 동안 한인 동포 대학생 및 한인 유학생에게 한국 기업의 이해와 현장 실무경험을 쌓아 향후 취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약 10주 동안 시행된다.

5월 31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코윤성용 KOCHAM 부회장(사무국장 겸임)과 한국무역협회 이준봉 뉴욕지부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간단한 코참 소개와 함께 인턴십 향후 일정, 코참 인턴십 전 기수 선배와의 만남, 합격자 간 네트워킹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인턴십 기간 종료일인 8월 9일에는 인턴십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인턴들에게 상장과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발된 21명의 학생들은 학년, 전공 및 특기사항을 고려해 뉴욕 및 뉴저지 등에 위치한 KOCHAM 회원사로 배치되어 오는 8월 9일까지 근무한다.

금년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포스코아메리카, 한화인터내셔널, 롯데



미한국상공회의소는 5월 31일 맨해튼 소재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여름 인턴십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미한국상공회의소]

데뉴욕팰리스, 신한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등이다.

△코참사무국 연락처

212-644-0140 ext.503
www.kocham.org